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 - 중국어 이중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요인

이 귀 옥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전 효 정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 혜 원 강 완 속 장 미 자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을 예언하는 최적 모형을 각각 제시하고, 중국 조선족 이중언어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과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의 관련성과, 나아가 이러한 이중언어발달과 인지발달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중국 조선족 아동 143명을 대상으로 한 부모설문과 아동검사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어 발달의 예측모형을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연령, 부모 언어태도와 인지발달은 한국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기억력은 인지발달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어 발달을 예언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연령, 인지발달, 부모의 한어사용 순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학력은 부모의 한어사용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중국어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 발달이 인지발달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이중언어, 중국 조선족 아동, 언어발달, 인지발달

연변의 조선족은 개인이나 사회가 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독립된 두 개의 언어를

가지는 수평적 이중언어(Horizontal bilingualism) 체계에 속해 있다. 또한 중국의 소수 민족 우대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행복한 이중 언어 생활을 누리고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지키고 있는 이상적인 이중 문화-이중 언어(Bicultural-bilingual) 환경으로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

본 연구는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2-072-HM2501).

교신저자: 전효정, E-mail:hjeon@daunet.donga.ac.kr

다(박영순, 1990). 이 지역에서 한국어가 제1 언어 및 제2언어로서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 21세기의 세계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기 되는 이중언어발달, 학습, 교육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생태실험실을 형성하고 있다.

언어는 가치, 신념과 규준과 같이 문화의 한 요소이다. 즉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전수되고 문화를 형성하므로, 언어가 문화적 표상을 형성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화의 다른 요소와는 달리 언어는 문화의 특별한 형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즉 언어는 문화를 전달하며, 나아가 개개인이 문화를 내면화하는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문화와 언어는 일체는 아니나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 급속한 국제화에 의한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제 2언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연변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은 다양한 학교환경과 가정환경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원영미, 김영주, 박태수, 나은영, 2003). 즉,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가정의 물리적 환경(미디어 환경 등), 가정에서의 언어사용 비율, 언어의 노출시기, 학교에서의 언어교육 등이 아동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준다. 더욱이 최근의 세계화 과정에 이중언어경험이 아동의 언어능력뿐 아니라 인지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이중언어환경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중언어환경과 아동언어발달의 관계와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을 예언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고,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발달의 상호관련성과 인지발달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동 언어발달의 영향 요인

가정 환경

아동의 언어발달은 선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달해 간다. 즉, 타고난 성별, 성격 등의 개인적 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준다.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미시환경(직접적 환경)으로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그리고 거시적 환경으로는 지역사회와 문화적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등과 같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초기 언어습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아동의 언어발달 연구에 의하면 하류층 아동들이 중류층 아동에 비해 선천적으로 언어 능력이 열등하거나 언어환경이 박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언어발달 수준에 있어 열세에 있다.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직업과 학력으로 구분된 각 집단들에서 관찰되는 아이와 부모의 행동 형태에 있어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Jones (1972)에 의하면 부모와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직업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아동의 언어능

력이 높았다. 즉 높은 언어능력을 가진 아동은 낮은 언어능력을 가진 아동에 비해 그들의 부모와 많은 상호작용을 가지며 그들의 부모로부터 학문적인 격려를 더 많이 받고 언어를 사용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더 많은 기회를 가지며 가정의 직업적인 지위가 더 높았다고 한다. 윤기옥(1973)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의 언어적 환경과 아동의 언어능력과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다양한 장면에서의 언어 강조, 정확한 언어사용의 강조, 어휘확장의 기회, 부모의 언어적 수준 등의 언어적 환경에 따라 아동이 사용하는 어휘의 양뿐만 아니라 언어구조에도 차이를 가져온다고 한다. Bradley와 Caldwell(1980)은 언어능력은 어머니와의 반응, 놀이자료, 환경의 조직과 높은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장영애(1981, 1995)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의 측면과 발달을 돕는 자극을 주는 것은 4~6세 연령에서 모두 아동의 언어능력을 의의 있게 예언해 주었으나 나머지 변인들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4세는 5세나 6세 아동의 경우보다 다양한 자극과 관계가 깊었지만 위의 두 변인 외에도 특히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가 언어능력을 예언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5세 아동의 경우는 경험의 폭이, 6세 아동의 경우는 성숙과 독립성을 육성하는 것이 언어능력을 예언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특성

가정의 심리적 환경으로 부모의 특성 즉, 양육태도, 가족과의 상호작용 형태나 행동유형, 그리고 부모의 언어태도와 사용은 아동의 초기 언어습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언어에 대한 태도는 아동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Tamis, Lemonda와 Bornstein(1989)의 아동의 언어, 놀이와 인지적인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습관화와 유아의 주의에 대한 어머니의 격려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기의 어머니의 격려는 후의 아동의 언어의 중요한 예언변인임을 보여주었다. Nisbet(1953)의 연구 등 관련 연구를 종합해보면, 유아의 언어발달에 있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등은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혜선, 1985).

몇몇 연구자들이 언어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찾고 언어에 대한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Falsold, 1984; Fishbein, 1965; Lambert, 1974; Lopez Morales, 1993; Ryan & Giles, 1982; Choi, 2003).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언어의 태도는 사회, 문화, 그리고 개인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심리 사회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Moreno Fernandez, 2000: 180). 부모의 언어에 대한 태도는 가정 내 언어의 실제 사용에 영향을 주고, 이는 아동의 언어발달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부모가 모국어 이외의 제 2, 3의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외국어 교육의 시작시기가 다를 것이고, 또한 부모가 각 언어에 대한 기대수준 등에 따라 아동에게 제공되어지는 언어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러한 언어 환경에 따라 아동의 언어유창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특성

아동의 특성, 즉 아동의 성별, 연령, 성격 및 정서적 특성, 그리고 인지적 능력에 따라 언어발달의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가정환경과 언어능력 관계를 연구한 Elardo 등(1977)은 남아들은 어머니의 정서적이고 언어적인 반응, 적절한 놀이자료의 제공과 관계가 깊고, 반면 여아들은 적절한 놀이자료의 제공, 어린이에 대한 어머니의 참여정도, 일상생활에서 자극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성격특성과 언어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격이 대체로 급한 유아는 말의 속도가 빠르고, 말의 억양도 높은 편이며, 말을 더듬거리는 경향이 있고, 또한 성격이 느리거나 차분한 유아는 말의 속도 역시 느리거나 차분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아들의 언어표현을 통해 주변의 성인들은 그 유아의 지적 능력과 성격을 진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 유아의 능력을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김혜경(2002)의 연구에 의하면, 성격특성과 언어능력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의 하위영역인 학문성, 사회성, 가족성, 정서성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능력의 하위영역 중 분석적 기능은 성격특성의 하위영역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학습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유아 스스로 사회적 상황에 잘 적응하여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협동적인 관계가 원만하여 대인 적응성이 강한 면을 보일 때 언어능력도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가 가정의 긍

정적 환경요인 속에서 가정에 대한 적응과 가족에 대한 바른 지각이 형성되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게 되며, 유아 스스로 사회적 상황에 잘 적응하여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협동적인 관계가 원만하여 대인 적응성이 강한 면을 보일 때 언어능력도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인지능력과 언어발달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이진향, 1992; 공숙자, 1995; 심수은, 1988; 이윤경, 1996; 최지은, 2000; 김혜경, 2002). 즉, 언어와 인지는 매우 밀접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고 하겠다.

몇몇 연구들이 여러 환경변인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중언어발달과 환경변인간의 인과모형을 설정한 황정규와 이정애(1976)는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즉 성, 사회계층, 가족 수, 지역적인 차이, 자녀양육태도, 자극환경, 어머니의 언어수준, 아동의 지능 등의 인과모형을 분석하였다.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동의 지능, 어머니의 언어수준, 지역적인 차이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어머니 언어수준과 지역적인 차이가 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4세 아동의 언어능력과 환경변인간의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한 장영애(199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아의 언어능력에는 간접적 자극, 직접적 자극, 가정경제 수준이 주요변인이었으며, 여아의 언어능력에는 간접적 자극, 직접적 자극, 가정 분위기 순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환경 자극변인, 사회인구론적 변

인, 아동의 지능과 언어능력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아, 여아 모두 가정환경 자극 변인이 가장 크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중언어 발달

이중언어(Bilingualism)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일 또는 그러한 능력을 말한다(1990, 박영순). 그러나 구체적으로 두 개의 언어를 알고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degree)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식도 이중언어로 인정하는 최소론자에서부터 거의 완전히 통달한 제 1 언어와 제 2 언어의 동등한 능력만을 인정하는 최상론자가 있다. 이러한 언어능력을 문화의 습득과 결부시켜보면 연변 조선족의 대부분은 개인이나 사회가 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독립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평적 이중언어군(horizontal bilingualism)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연변 조선족들이 완전한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인이 되는 것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다.

이중언어의 사용이 각 언어발달에 긍정적 인지,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 어린이의 중국어와 영어의 발달을 관찰한 Huang(1971)은 제 1 언어의 발달이 제 2 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발달하게 한다고 하였다. Cummins(1979, 1981)는 언어 학습과정에서 모국어와 제 2 언어는 관련이 있다는 이론(threshold hypothesis)을 주장하였으며, 이 이론은 다른 학자들(Andersson, 1976; Redlinger, 1979)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Savil

과 Troike(1971)는 한 언어의 기본 읽기 실력은 다른 언어의 읽기 실력으로 쉽게 전이된다고 보고하였고, Alatis(1975)는 교육과정과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는 외국어를 가르치기 전에 모국어로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학습부진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Rehbein(1984)은 독일에서 자라는 터키 어린이들이 제 1 언어와 제 2 언어 사이에서 개념적인 지식과 복잡한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을 보고하였다. McLaughlin(1986)은 Cummins의 이론에 대해 사회적인 다양성과 문화화의 정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나, 제 2 언어를 가르치기 전에 제 1 언어의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제 2 언어를 효율적으로 습득하게 한다는 것은 지지했다. 이러한 가설은 더욱이 집중훈련프로그램(immersion program)에서 배운 어린이들의 학습결과를 연구한 문헌들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최근 이중언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중언어 집단과 단일어 집단의 언어발달을 비교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Meisel(1990)과 Goodz와 동료들(1987)은 이중언어아동이 언어의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어 집단보다 언어 구조를 빨리 습득하고 실수를 적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중언어발달에 관련한 여러 문헌 연구를 토대로, Lindholm(1980)과 De Houwer(1995)는 언어발달의 수준과 과정에 있어 이중언어집단과 단일어 집단이 아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중언어아동의 언어발달 사례연구를 다른 연구의 단일어 아동들과 비교한 것으로 방법론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Gathercole(in press)는 이중언어아동이 단일어 아동들보다 언어 습득

의 완성 시기가 늦지만 언어발달 과정은 단일어 아동과 동일하며, 발달의 수준 차이는 10세에 이르면 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황혜정과 황혜신(2000)은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아동들의 연구에서 이중언어 사용에 의한 차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6세에 이르면 거의 없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언어발달의 완성 시기의 차이는 언어습득과정에서 각 언어의 ‘투입(input)’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언어발달 과정 및 발달 수준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연변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

최근 자치주 50주년을 맞은 연변자치주는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민족교육 문제 등 많은 문제점으로 사회문제를 앓고 있다. 조선족 인구는 갈수록 줄고, 문화의 기반마저 무너져 공동체 해체 위기론까지 나올 정도다. 연변자치주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2000년 현재), 지난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10년 조선족 학생 수는 8만762명에서 4만3천277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46.4%에 달한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국외에서도 계승되고 있는 현황과 조선족이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내에서 사회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현상을 언어발달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환경

조선족 가정환경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조선족은 중국 내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매우 동일한 특성

을 나타내지만, 오히려 한국보다는 평등한 성 역할을 나타내며 것을 알 수 있다.

연변의 가정환경과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최근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각 언어의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어머니의 학력과 소득 수준 또한 높을수록 아동의 각 언어능력 수준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이귀옥 외, 2003). 연변 조선족 아동들은 이중문화-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모국어인 조선어는 태어나서부터 접하지만, 한어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기 전에는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한어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따라 노출되는 시기는 다를 것이다.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이귀옥 외, 2003), 소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한어에 처음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부모가 평정한 자녀의 한어 수준은 한어의 노출시기의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소학교 입학하기 전에(6세 이전) 한어에 노출된 아동이 이후에 노출된 아동보다 한어를 더 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제 2언어의 노출 시기가 빠를수록 유창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어의 경우 공식교육기관인 소학교에 입학하여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노출된 집단이 이후에 노출된 집단에 비해 언어 유창성이 높았다. 이는 언어의 경우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미디어 언어환경

TV는 다양한 미디어 중 아동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언어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변의 경우 방송 채널은 연변 자치주 방송, 연길시

방송, 중국 방송, 그리고 케이블 TV방송 등이 있다. 이 중 조선어로 방영하는 것은 케이블 TV 방송과 연변 자치주의 제 1 TV 방송인데, 정규 방송인 연변 자치주의 제 1 TV 방송에서 조선어 사용정도를 살펴보면, 주중은 조선어 사용이 21%~34.5%이며, 주말에는 토요일 36%와 일요일 50.6%로 주말에 조선어 방영 비중이 높았으며, 전체 평균 방영시간의 32.4%가 조선어이었다. 프로그램 장르별 조선어 방영시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드라마가 3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영화 또는 기록편이 26.5%, 시사교양프로그램이 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락프로그램의 조선어 방영 비율은 6.7%, 아동프로그램은 3.2%, 스포츠는 0.1%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의 3.2%인 아동 프로그램은 ‘조국의 산천’과 ‘우리네 동산’이며, 두 프로그램 모두 조선어가 아닌 한어로 방영되고 있다.

연변 조선족 가정의 미디어 환경 조사에 의하면(이귀옥 외, 2003),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의 종류로는 음향기/라디오, 오락기, 카세트녹음기, TV, VCR, VCD, DVD, 그리고 컴퓨터, 전화기, 핸드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 미디어의 보급률을 살펴보면, TV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화기, 핸드폰, 라디오, VCR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평균시간은 TV 보기가 평일과 주말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0% 이상이 평일 TV를 시청하며, 50% 이상은 1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는, 신문/잡지, 책, 라디오의 경우 모국어인 조선어의 비중이 높고, 텔레비전의 경우 조선어와 한어의 비중이 반반 정도이고, 컴퓨터의 경우 한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중언어발달 연구모형

앞에서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이중언어환경이 아동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연변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환경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요약하여 종합하면,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이 아동의 특성뿐 아니라 부모의 특성, 그리고 가정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등의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부모의 특성(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언어에 대한 태도)과 가정의 언어 환경(가정에서의 언어사용 비율), 미디어 환경 등의 이중언어환경과, 아동의 특성(성별, 연령, 성격, 인지 등)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아동의 이중언어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조기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단순한 실태조사의 수준이나 각 변수들 간의 관련 정도에 대한 결과는 이중언어에 대한 요구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기 어렵다. 보다 구체적인 변인들 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이나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보다 효율적인 이중언어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중언어의 환경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주는 영향과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중국 연변의 아동의 언어 발달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이중언어 환경제공을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의 예언을 위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모국어와 제 2 언어 발달의 관련성 및 이중언어발달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의 물리적 환경, 아동의 특성, 그리고 부모의 특성, 가정의 이중언어환경,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 등 다양한 변인들 중 아동의 한국어와 중국어발달을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들을 찾아 연변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한 변인들을 통합하고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 연구문제 1.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 발달을 가장 잘 예언하는 모형은?
- 연구문제 2. 중국 조선족 아동의 중국어 발달을 가장 잘 예언하는 모형은?
- 연구문제 3. 모국어인 한국어 발달이 중국어 발달에 영향을 주는가?
- 연구문제 4. 이중언어발달은 인지발달에 영향이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중국 연변 자치주의 연길시에 소재한 5개 조선족유치원에서 만 3세~5세 이중언어아동 155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중

언어환경,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에 관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검사와 그림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최종분석에서는 설문자료와 인지검사가 모두 있는 143명(남아 67명, 여아 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도구

가정환경과 부모특성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부모특성과 관련한 변인으로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월 평균 소득, 부모의 언어 태도와 언어사용, 그리고 양육관 등을 조사하였다. 부모의 언어태도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관련한 각 문항(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면, 자녀의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자녀의 중국어 교육이 향후 성취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문항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관한 부모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부모의 언어사용은 Mendoza와 Martinez(1989)가 개발하고 이혜승(2000)이 사용한 The Cultural Life Style Inventory를 조복희 외(2003) 연구에서 중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4개의 하위 요인 중 가정내 언어요인(5문항)으로, 가정의 언어요인(5문항)을 부모의 언어사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alpha=.86$, $\alpha=.82$ 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를 들면 ‘자녀 또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 등의 가정내 언어요인과 ‘친구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은’ 등의 가정외 언어요인을 부모의 한국어 사용정도와 중국어 사용정도의 2개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동특성

아동의 성별과 모국어, 그리고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언어 및 다닌 기간 등을 부모 설문 을 통해 파악하였다.

아동들의 지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능검사 대신 기억검사(Zelazo, Burack, Jacques, & Frye, 1997)가 실시되었다. 이는 기억검사 도구는 36cm×66cm 크기의 포스터에 만 3세의 아동에게도 익숙한 동물과 사물 12가지(청 소기, 전화기, 호랑이, 버스 등)를 배치하여 시리즈로 10장 정도 준비하여 아동이 제시한 사물을 어느 정도 바르게 기억하는지를 측정 한다. 검사도구 사용의 타당도를 위하여 한국 의 만 3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 였으며, 연변에서도 익숙한 사물이며 용어의 적절성을 위하여 연변조선족 대학원생에게 자문을 구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사 순서는 먼저 장난감 고양이를 소개하 고 실험자가 고양이가 좋아하는 사물을 이야 기 한 후, 고양이로 특정 사물의 그림을 가리 키면서 실험자가 각 사물의 이름을 말한다. 다음, 아동에게 고양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질문한다. 각 포스터에서 고양이가 가리키는 물건은 한 개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증가하 며(포스터 1에서는 한 개, 포스터 2에서는 두 개, 포스터 10에서는 10개 등), 아동이 연속하 여 두 개의 포스터에서 실수를 할 때까지 진 행한다. 점수 측정은 각 포스터에서 제시한 사물을 아동이 맞게 기억한 수, 틀리게 기억 한 수, 빠트린 수를 시행 중에 검사지에 체크 하였으며, 틀린 포스터를 포함한 전체 포스터 에서 맞게 기억한 수의 총합이 점수가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기억력 측정에 있어 최종

수행만 고려하는 수세기(digit span)보다 정교 한 측정이 가능하다.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드분류검사(Dimensional Change Card Sorting Task)를 실시하였다. 카드분류검사는 어린 아 동들의 지식과 행동의 협응을 측정하기 위해 Zelazo 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도구이다(Zelazo et al, 1996). 아동에게 빨간색과 파란색의 동그 라미와 네모의 카드(8cm×8cm)를 사용하여 제 시된 카드를 인식의 특성에 따라 두 그룹으 로 분류하도록 한다. 그 다음 같은 카드를 다 른 특성으로 다시 분류하도록 한다.

실시방법은 아동의 앞에 카드를 분류하여 답을 수 있는 2개의 통을 놓고, 각 통의 뒤에 스탠드를 세워 목표하는 카드를 붙인다. 빨간 동그라미, 파란 네모를 예를 들 경우 아동에게 10장의 카드(5장의 빨간 네모와 5장의 파란 동그라미)를 주고 분류하도록 한다. 이 검사는 분석과제, 통제과제, 그리고 지식과제의 세 단 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는 분석과제로 실험자가 목표카드(빨간 동그라미, 파란 네모)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게임의 규칙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자 이것은 색깔놀이야, 색깔놀이 에서는 빨간색은 여기, 그리고 파란색은 여기 이 상자에 넣는 거다. 색깔이니까 빨간색은 이 상자(파란)에 넣으면 안 된다. 빨간색은 여 기, 파란색은 여기에 넣어야 된다.” 한번의 연습을 통해 피드백을 준 다음 아동에게 카 드를 건네며, “이 카드는 어디에 넣을까?”라 고 질문한다. 한 번의 연습이 끝나면, 10장의 카드(set 1-빨간 동그라미 5장, 파란 네모 5장) 를 분류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통제과 제로 목표카드는 그대로 두고, 실험자가 아동 에게 새로운 놀이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반대

특성(모양)을 사용하여 다시 규칙을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자 이것은 이제 모양놀이란다. 동그라미는 여기로, 그리고 네모는 이 상자에 넣는다.” 다시 아동에게 10장의 카드 (Set 2-과란 동그라미 5장, 빨간 네모 5장)를 분류하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는 아동들의 규칙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고, 지식에 따라 카드를 분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식과제이다. 즉, 각 단계의 모양놀이와 색깔놀이에서 카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아는지 물어본 다음, 카드를 제시하면서 직접 카드 3장을 분류해 보도록 하였다. 카드분류검사의 채점은 1단계에서 10장 중 정확하게 분류한 카드 숫자만큼 점수를 받고, 2단계에서도 10장 중 성공한 숫자만큼 점수를 받고, 3단계에서는 3번의 시도에서 성공한 숫자를 점수로 계산한다.

아동의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

아동의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어휘력검사(Dunn & Dunn, 1981)를 실시하였다. 그림어휘력검사는 2세 이상의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용언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언어검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동에게 4개의 그림이 있는 카드를 보여주고 검사자가 말하는 사물이 무엇인지 답하도록 한다. 기준선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 문제로 진행되며, 연속된 8문항 중 6문항에서 틀릴 때까지 실시한다. 표준화된 표를 바탕으로 원점수를 백분위 점수, 표준점수 등으로 환산한다.

본 연구에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림어휘력검사(Dunn & Dunn, 1981)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역 표준화 한 한국판-그림어휘력검

사(김영태 외, 2002)를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조선족의 경우는 중국어 검사와 더불어 조선어판 그림어휘력검사가 실시되었다.

연구 절차

부모용 질문지는 연결시 소재 5개 유치원을 선정하여 원생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뒤 1주일에 걸쳐 회수하였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2003년 4월 일주일간 훈련된 검사자가 실시하였다. 아동 1인당 검사 소요시간은 1차 기억검사와 카드검사가 25분 이내, 2차 그림어휘력검사가 각각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아동의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을 예언하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인들과 한국과 중국어 발달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한 변인을 우선 선정하였다. 선정한 변인들로 모형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나아가 모형 내의 변인들 간 추가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회귀분석에 있어 통계결과의 의미 있는 분석과 해석을 위하여 모든 측정변수를 5점 척도화 하여 사용하였다.

결 과

한국어 발달

한국어 발달과 관련 있는 변인 선정

한국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먼저 다양한 변인과 한국어 발달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과 같이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연령, 부모 언어태도, 그리고 인지발달 등으로 나타났다. 기억력은 $P=.051$ 로 .0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연령 및 인지발달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므로 모형에 입력할 변수로 선정하였다.

한국어 발달 예측 모형

표 1. 한국어 수준과 관련 있는 변인 간 상관

	1	2	3	4	5
1. 한국어 수준	1.00				
2. 연령	.234*	1.00			
3. 기억력	.127	.278*	1.00		
4. 부모언어태도	.145*	.022	-.023	1.00	
5. 인지발달	.195**	.274**	.291**	.118	1.00

* $p<.05$, ** $p<.01$

상관분석을 통하여 선정한 변인들을 포함한 모형으로 한국어 발달의 예측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연령, 부모 언어태도, 그리고 인지발달은 아동의 한국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언어태도는 부모의 한국어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대한 인식으로 기존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의식과 요구도가 아동의 언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

표 2. 한국어 발달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회귀분석

변인	B	β	t
상수	1.957		9.24**
연령	.129	.188	2.83**
기억력	.025	.044	.65
부모언어태도	.079	.129	2.05*
인지발달	.080	.116	1.99*
			$F=5.845$ **

* $p<.05$, ** $p<.01$

사하지만, 구체적인 변인과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언어태도가 아동의 모국어발달에 영향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억력은 한국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나, 아래의 가설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령이 기억력에 영향을 주고, 연령과 기억력은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며, 연령과 인지발달은 한국어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 간 여러 차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연령은 기억력, 인지발달, 그리고 한국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기억력은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하여 한국어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중국어 발달

표 3. 한국어 발달 예측 변인들 간 회귀분석 결과

독립→종속변인	B	β	F
연령 →한국어	.161	.234	13.77**
연령 →기억력	.334	.278	19.80**
기억력→인지발달	.275	.291	21.94**
연령, 기억력→인지발달			16.88**
연령	.238	.209	
기억력	.220	.233	
연령, 인지발달→한국어			9.36**
연령	.134	.196	
인지발달	.086	.142	

** $p<.01$

중국어 발달과 관련 있는 변인 선정

중국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먼저 다양한 변인과 중국어 발달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한국어 발달과 유사하게 연령, 기억력, 인지발달 등이 중국어 발달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한어사용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변인들과의 연관을 고려해 볼 때 부의 학력은 중국어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더라도 간접 영향이 있을 것이다. 즉, 부의 학력은 부모의 한어 사용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므로 모형에 입력할 변수로 선정하였다.

중국어 발달 예측 모형

표 4. 중국어 수준과 관련 있는 변인 간 상관

	1	2	3	4	5	6
1. 중국어 수준	1.00					
2. 연령	.32*	1.00				
3. 기억력	.16*	.28*	1.00			
4. 부모 학력	.03	.02	-.09	1.00		
5. 인지발달	.27**	.27**	.29**	.01	1.00	
6. 부모 한어사용	.17*	.05	.11	.14*	.01	1.00

표 5. 중국어 발달 예측 변인들 간 회귀분석 결과

독립→종속변인	B	β	F
연령→중국어	3.49	.32	26.92**
연령→기억력	.334	.278	19.80**
기억력→인지발달	.275	.291	21.94**
연령, 기억력→인지발달			16.88**
연령	.238	.21	
기억력	.220	.23	
연령, 인지발달→중국어			19.02**
연령	2.89	.27	
인지발달	1.92	.20	

표 6. 중국어 발달에 대한 예외변인들의 회귀분석

변인	B	β	t
부의 학력→부모 한어사용	1.722	1.27	.14
부의 한어사용→중국어	2.80	1.92	.17
연령	.082	.01	.14
기억력	.51	.06	.92
부의 학력	1.91	.20	3.09**
인지발달	1.84	.16	2.63**
부모의 한어사용			F= 9.24**

**p<.01

상관분석을 통하여 선정한 변인들을 포함한 모형으로 중국어 발달의 예측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연령, 인지발달, 부모의 한어사용 순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 중 연령, 인지발달 부모의 한어사용 정도는 아동의 중국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모형에 포함된 변인 사이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인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기억력이나 부모학력은 중국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나, 아래의 가설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령이 기억력에 영향을 주고, 연령과 기억력은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며, 연령과 인지발달은 중국어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모학력 또한 부모의 한어사용에 영향을 주어 중국어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 간 여러 차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연령은 기억력, 인지발달, 그리고 중국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기억력은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하여 중국어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과 인지발달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의 관련성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 수준을 알아보고, 이중언어 사용이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그림어휘력검사의 백분위 점수를 살펴보면 3세는 평균 31.14, 4세는 38.67, 5세는 42.11로 나타났다. 백분위 점수가 40~60은 평균수준으로 만 3세와 4세는 평균이하의 수

준이며, 만 5세에 이르러 연령에 적합한 정상 언어발달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겠다.

중국어 수용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그림어 회력검사 결과에서 백분위 점수를 보면 3세는 평균 18.08, 4세는 18.29, 그리고 5세는 39.56으로, 한국어 발달 수준과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 상대적 언어 능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5세 집단이 3, 4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중국어의 상대적 능력이 높아져 거의 정상언어 발달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족 이중언어 아동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은 3세와 4세의 경우는 같은 연령아동집단 내의 수준을 나타내는 백분위 점수를 볼 경우 연령에 비해 발달수준이 지체되어 있으나, 5세에 이르러서는 거의 정상범주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이중언어아동들이 언어발달의 일시적 지체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황혜신, 황혜정, 2000; Gathercole, in press;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2003). 연변 조선족 아동들이 가정과 유치원에서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중국어 단일어 아동에 비해 언어 환경적 ‘투입(input)’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수준의 차이는 점진적으로 줄어 만 5세에는 정상범주에 가까이 근접하고 있다.

조선족 아동의 모국어인 한국어의 발달이 중국어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면, 두 언어 발달 수준의 상관관계는 $r=.78^{**}$ 로 상관이 아주 높으며, 회귀분석결과 한국어가 중국어 발달 수준을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beta=.52$, $F=87.05^{**}$). 즉, 한국어의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제 2 언어인 중국어의 발달 수준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 1 언어의 발달이 제 2 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발달하게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Huang, 1971; Cummins, 1979, 1981).

이중언어발달과 인지발달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달이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발달과 관련 있는 변인들을 추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연령, 기억력, 한국어, 중국어 발달을 포함한 모형을 검증한 결과 연령($\beta=.170$, $t=.150^*$), 기억력($\beta=.205$, $t=.217^{**}$), 중국어($\beta=.177$, $t=.165^*$)가 인지발달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F=11.01^{**}$. 한국어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어 발달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중언어의 사용이 인지발달에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다 정교한 연구와 분석이 요구된다.

논 의

본 연구는 중국 연변의 이중언어환경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이중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아동의 언어발달의 영향요인과 이중언어발달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양한 변인들을 측정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토대로 한국어 발달과 중국어 발달의 예측모형을 각각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나아가 모형 내의 변인들 사이의 영향을 분석하여 아동의 이중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 수준과 그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중언어 발달이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어 발달의 예측모형을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연령, 부모 언어태도, 그리고 인지발달은 아동의 한국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억력은 한국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나,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연령이 기억력에 영향을 주고, 연령과 기억력은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며, 연령과 인지발달은 한국어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둘째, 상관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변인들을 포함한 모형으로 중국어 발달의 예측모형을 검증한 결과 연령, 인지발달, 부모의 한어사용 순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 중 연령, 인지발달 부모의 한어사용 정도는 아동의 중국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학력은 부모의 한어사용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중국어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이는 최근 연변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에서(이귀옥 외, 2003), 아버지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각 언어의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부모의 한어사용은 언어습득과정에서 각 언어의 '투입(input)'의 개념으로 아동의 중국어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발달 수준은 만 3세와 4세는 각각 평균이하의 수준이며, 만 5세에 이르러 연

령에 적합한 정상언어발달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겠다. 이는 이중언어경험이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의 일시적 지체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Gathercole, in press; 황혜정, 황혜신, 2000; 이귀옥 외 2003).


넷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달이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기억력, 중국어가 인지발달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발달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중국어 발달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인지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변의 이중언어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한 언어교육 환경과 가정환경이 아동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이귀옥 외, 2003),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을 예언하는 연구모형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는 이중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의 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발달과 이것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모형을 확장하여 이러한 다양한 이중언어환경과 이중언어의 발달이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나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보유 (1999). 중국 조선족의 모국어 생활과 모국어 교육. 전남대 현대사회과학연구, 10, 29-51.
- 강영덕 (1999). 연변 조선족 연구와 교육문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논문집, 14(1), 65-73.
- 권기영 (1990). 연변의 2중 언어 조기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회지, 7, 221-229.

- 김영곤 (1996). 캐나다에서의 이중언어사용과 이중언어교육 이론과 실제. *한국말교육*, 7, 189-198.
- 김영태 외 (2002). 그림어휘력검사 실시요강. 서울장애인 복지재단.
- 김중섭 (2002). 러시아 및 중국 지역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혜경 (2002). 유아의 성격특성, 인지처리능력 및 언어능력간의 관계. *유아교육*, 11(1), 173-182.
- 장영애 (1994). 아동의 언어 능력과 환경 변인간의 관계분석 II: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3), 171-184.
- 장영애 (1995). 가정환경자극, 사회인구론적 변인과 아동의 언어 능력간의 인과 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4), 173-188.
- 박영순 (1990). 이중언어 이론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제. *이중언어학회*, 6(11), 135-167.
- 박영순 (1995). 이중 언어 능력과 인지 기능. *이중언어학회지*, 12, 1-17.
- 박태형 (1995). 중국 조선족학교에서의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학회지*, 12, 401-405.
-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원영미, 김영주, 박태수, 나은영 (2003). 중국 연변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 환경. 부산: 서림출판사.
-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2003). 3~5세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과 인지능력 및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인지적 복잡성에 따른 분석과 통제 이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6), 1-14.
- 심수은 (1988). 유아의 영어 학습경험과 단어의미 이해.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경 (1996). 언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메타언어 인식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은 (2000). 유치원 영어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유아의 메타언어 인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복희, 이재연, 윤종희 (1993). 연변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육아방식의 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1(1), 35-44.
- 최우길 (1998). 중국 조선족 사회와 교육의 변화.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 자료집*, 123-150.
- 황혜신, 황혜정 (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연구. *아동학회지*, 21(4), 69-79.
- Ben-Zeev, S. (1977) *The Influence of Bilingualism on Cognitive Strategy and Cognitive Development*. Bilingual Education Service Center.
- Bialystok, E. (1992). Attentional control in children's metalinguistic performance and measures of field independ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654-665.
- Bialystok, E. (1999). Cognitive complexity and attentional control in the bilingual mind. *Child Development*, 70(3), 636-644.
- Bornstein, M. H. (1989) Predicting variation in the timing of language milestones in the second year : an events history approach. *Journal of Child Language*, 25(3) Oct 1998, 675-700.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i, J. (2003). Language attitudes and the future of bilingualism: The case of Paraguay.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 Cummins, J. (1979). Linguistic interdependence and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bilingual children. *Review of Education Research*, 49, 222-251.
- Diaz, M. (1985). Addressing three gaps in current research. *Bilingual Cognitive Development*, 56, 1376-1388.
- Dunn, L. M, & Dunn, L. M. (1981).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Circle Pines, MN : American Guidance Service.
- Gathercole, V. C. M. (in press). Monolingual and

- bilingual acquisition: Learning different treatments of that-trace phenomena in English and Spanish. In D. K. Oller (Ed.), *Language and literacy in bilingual children*. Clevedon, UK: Multiingual Matters.
- Gonzalez, V. (1994). A model of cognitive, cultural, and linguistic variables affecting bilingual Hispanic children's development of concepts and languag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6(4), 396-422.
- Hakuta, K. (1984).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bilingualism cognitive flexibility, and social-cognitive skills in Hispanic elementary school children*.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 Zelazo, P. D. & Frye, D. (1997). Cognitive complexity and control: A theory of the development of deliberate reasoning and intentional action. In M. Stameniv (Ed), *language structure, discourse, and the access to consciousness* (pp. 113-153).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 Ianco-Worrall, D. (1972). Bilingualism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3, 1390-1400.
- Meisel, J. (1989). Early differentiation of language in bilingual children. In K. Hyltenstam & L. Obler (Eds.), *Bilingualism across the lifespan: Aspects of acquisition, maturity and loss* (pp. 13-4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arl, E. & Lambert, W. (1962). The relation of bilingualism to intelligence. *Psychological Monographs*, 76, (Whole No. 546), 1-23.

Predicting Factors of Korean-Chinese Children's Bilingual Development in China

Kwee-Ock Lee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soong University

Hyo-Jeong Jeon
Dept. of Home Economics,
Dong-A University

Hyewon Park Choi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Wan Sook Kang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oong University

Mi Ja Chang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o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various factors which affect child language development and the effects of bilingual experiences on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143 Korean-Chinese children in China were selected to test Korean-Chinese language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bilingual environments. The best predicting model of the Korean and Chinese development was suggested. The age, parents' language attitude, and cognitive development directly affected the children's Korean development while memory indirectly affected the children's Korean development. Similarly, the age, parent's Chinese use and cognitive development directly affected the children's Chinese development, while memory and fathers' education indirectly affected the children's Chinese development.

Keywords : Bilingualism, Korean-Chinese Children, Language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